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5]

— 「公冶長」을 중심으로 —*

金 容 載 *

<目 次>

- | | |
|-----------------------|--------------------------|
| I. 序言 | III. 諸註釋을 통해본 經文 解釋의 多樣性 |
| II. 「公冶長」篇의 體制와 구조 분석 | IV. 結語 |

<국문 초록>

이 글은 필자가 『論語』 經文에 관한 해석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찾아본다는 취지하에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論語』 해석에 있어서 ‘정확성’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성’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함에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次第에 미리 밝힌다. 이유는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전 해석이 대체로 朱熹의 『集注』를 매우 충실히 계승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集注』는 실로 대단한 권위와 정본으로 여겨졌으며, 朝鮮의 儒者들에게 있어 사상적 입론의 근거를 내세우는 第一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요즘 중국과 일본의 경학 연구자들은 경전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은 음운학이나 역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誠信女子大學校 漢文教育科 教授 / dongjam@sungshin.ac.kr

사학·어법학 등, 經書와 연관된 주변 학문과의 학제間 연구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전 해석에 관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개방적인 연구 방향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학문 연구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전 해석의 다양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겠으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訓詁와 義理 그리고 考證에 입각하여 『논어』 경문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각 篇別[시리즈]로 연구의 습작을 내놓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 「公治長」편의 체제와 구조적 특징, (ii) 諸註釋에 근거한 「公治長」편 경문의 해석상에 있어 다양한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論語, 經文, 古注, 新注, 集解, 集註, 公治長篇

I. 序言

이 글은 『논어』 해석에 있어서 ‘정확성’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성’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전 해석은 대체로 朱熹의 『集注』를 매우 충실히 계승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왔다. 『집주』는 실로 대단한 권위와 정보으로 여겨졌으며, 조선의 유자들에게 있어 사상적 立論의 근거를 내세우는 제일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요즘 중국과 일본의 경학 연구자들은 경전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은 음운학이나 역사학·어법학 등, 經書와 연관된 주변 학문과의 학제間 연구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경전 해석에 관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개방적인 연구 방향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우리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訓詁와 考證, 그리고 『集注』 이외의 조선 유자들의 다양한 『논어』 해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하나의 경문을 놓고 여러 주석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그리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논어』 경문의 다양한 해석을 찾아본다는 취지하에 「學而」편부터 시리즈 형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아울러 (1)『論語』를 연구의 주텍스트로 삼은 이유와 배경, (2)註釋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특징, (3)『論語』註釋書로 거론되는 대표 서적, 그리고 (4)각 篇의 체제와 경문 내용의 주제에 따른 구조적 분석 등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既술해 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公冶長」편의 체제와 구조적 분석을 시작으로, 총 스물일곱 개의 경문 가운데 해석의 다양한 관점이 거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 분석 비교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II. 「公冶長」篇의 體制와 구조 분석

「공야장」편은 총 스물일곱 개의 경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孔子의 弟子 또는 門人들에 대한 評論과 陳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朱熹는 「公冶長」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篇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았다.

이 篇은 모두 고금의 인물에 대한 현부(현명함과 현명하지 못함)와 득실(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을 논하고 있으니, 대저 격물궁리의 한 단서이다. 모두 27장이다. 호씨는 “이 편은 자공의 문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닐 까라고 생각된다 하였다.”²⁾

1) 金容載, 「『論語集解』와 『論語集注』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1] - 「學而」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第31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金容載, 「『論語』 고주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 『東洋哲學研究』 第59輯, 동양철학연구회, 2009.; 金容載, 「『論語集解』와 『論語集注』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2] - 「爲政」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第34號,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金容載,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4] - 「里仁」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第70輯, 동양철학연구회, 2012.

「里仁」篇의 내용은 주로 ‘仁’에 관한 추상적인 이야기나, 혹은 보편적 내면의 덕성과 연관된 哲理的인 經文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야장」편은 「이인」편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형이상학적이고도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현실로 내려와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인간적인 색채와 평가 등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드라마틱한 장면들로 연출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주희 역시 이러한 느낌을 고급 인물의 賢否·得失을 평론해 놓은 것이라 解題해 놓았다.

아래는 「공야장」편에 수록된 스물일곱 개의 경문을 분류·정리해 보았다.

표: 「公治長」篇 27개 經文의 주제와 요지

순	경문	관련 대상 '인물'	경문 내용의 요지
第 1 部	1 子謂公治長~/子謂南容~	공야장, 남용	공야장과 남용을 평하다
	2 子謂子賤~	자천	자천을 평하다
	3 子貢問曰 賜也 何如~	자공	자공은 瑚璉과 같다.
	4 或曰 雍也~	염옹	염옹을 평하다
	5 子使漆雕開仕~	칠조개	칠조개를 평하다
	6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자로	자로를 평하다
	7 孟武伯問 子路仁乎~	자로, 염구, 공서화	자로, 염구, 공서화의 장점을 숭회하다
	8 子謂子貢曰~	자공, (안회)	자공과 안회를 비교하다
	9 宰予晝寢~	재여	재여를 질책하다
	10 子曰 吾未見剛者 或對曰 申枨~	신장	신장을 평하다
	11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자공	자공을 평하다
	12 子貢曰 夫子之文章~	공자	자공, 스승 공자를 회상하다
	13 子路 有聞~	자로	자로의 인품을 서술하다
第 2 部	14 子貢問曰 孔文子~	공문자	위나라 대부 공문자를 평하다
	15 子謂子產~	자산	자산을 평하다
	16 子曰 晏平仲~	안평중	안평중을 평하다
	17 子曰 臧文仲~	장문중	노나라 대부 장문중을 평하다
	18 子張問曰 令尹子文~	영윤자문	초나라 上卿 영윤자문을 평하다
	19 季文子三思而後行~	계문자	노나라 대부 계문자를 평하다
	20 子曰 甯武子~	영무자	위나라 대부 영무자를 평하다
	21 子在陳 曰 歸與歸與~	공자, 제자	공자, 자신의 제자들을 회상하다
	22 子曰 伯夷叔齊~	백이, 숙제	백이숙제를 평하다
	23 子曰 孰謂微生高~	미생고	미생고를 평하다

2) 朱熹, 『論語集注』, 「公治長」, “此篇,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第 3 部	24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좌구명	공자, 자신을 좌구명과 비교하다
	25	顏淵季路侍~	안연, 자로	공자, 안연 자로와 함께 心志를 말하다
	26	子曰 已矣乎~	공자	內自省의 인물을 보지 못해 탄식하다
	27	子曰 十室之邑~	공자	공자, 자신을 好學의 인물로 述하다

「공야장」편은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방면에서 볼 때, 크게 ‘세 개의 部’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1부’는 1장~13장까지이며, ‘제2부’는 14장~23장, 그리고 ‘제3부’는 24장~27장까지이다. ‘제1부’의 첫 1장은 공자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2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공자 주변의 인물과 제자들에 대한 評述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제1부의 끝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2장과 13장은 전반부에 대한 부록의 성격으로서 자공이 공자를 회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제2부’는 14장부터 23장까지에 해당하는 경문으로서, 공자 當代의 인물이나 혹은 공자보다 바로 앞선 시대의 역사적 인물[巨木]들에 대한 評論으로 일관되고 있다.³⁾ 그리고 ‘제3부’에 해당하는 경문 24장부터 마지막 경문 27장까지는 공자 스스로의 自評에 해당하는 글이다.

『논어』 스무 편의 篇名이 시작하는 첫 어구의 두 세 글자로 삼았을 정도로 단순하고 일시적인 약속에 따라 편집·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편의 경문 내용들을 훑으러 놓은 후 이를 다시 주위 담는 식으로 분석하다보면, 『논어』는 놀라울 정도로 어떤 정합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⁴⁾

예컨대 「八佾」篇이 ‘禮樂’에 관한 主내용이었고, 「里仁」篇이 ‘仁’에 관한 보편적 내면의 덕성과 추상적 서술로 일관된 것이었다면, 「公冶長」

3) 단, 經文 21장은 공자가 처했던 현재적[當代] 삶의 노정을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4) 필자는 이미 「八佾」第三과 「里仁」第四 편의 구성과 체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편제상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들을 밝힌 바 있다. (拙稿,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해석학적 이해[4] - 「里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0집, 동양철학연구회, 2012. 5.; 拙稿, 『『論語集解』와 『論語集注』의 註釋 비교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이해[3] - 「八佾」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6.)

篇은 구체적 현존재의 인간들, 즉 때로는 弟子이거나 門人이며 때로는 先代의 유력한 인물들을 전제로 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공야장」편은 무엇보다도 공자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제자들과 문인들 앞에서 話者와 聽者를 구분해 놓고 공자학단에서의 일상을 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생동감이 넘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Ⅲ. 諸註釋을 통해 본 經文 解釋의 多樣性

「公治長」篇의 경문은 모두 27개이다. 이들의 경문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일일이 찾아 해석의 다양성을 모두 보여주거란 물리적으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스물일곱 개의 경문 가운데 ①板本에 따른 글자의 유무와 오탈자가 심하여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②주석의 내용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③뭉어 읽기에 따라 경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경문을 선별하여 서술해보기로 한다.

05-01 子謂公治長 可妻也, 雖在縲紲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子謂南容 邦有道不廢, 邦無道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공야장」편의 첫 번째 경문은 두 개의 사건과 인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첫 장을 두 개로 나누어 「공야장」편이 총 28개의 경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다만 『집주』의 편장 체제에 따르면 「공야장」 첫 번째 경문은 공자의 가족과 관계된 일화로 인정하여 ‘공야장’과 ‘남용’을 거론하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경문으로 묶었다.

첫 번째 경문의 내용은 公家에서 야금질을 하던 匠人 ‘公治長’이 비록

옥중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의 罪가 아니기 때문에 공자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낼 만하다고 ‘공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경문은 ‘남용’의 인품과 풍모를 높게 평가하여 공자의 조카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는 내용이다.⁵⁾ ‘南容이 나라에 道가 있을 때는 버려질 수 없는 인물이고, 설사 나라에 道가 없어 잔악무도한 시기에 처하여도 무차별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南容’은 상당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셈이다. 내용적으로 고주와 신주 간에 해석상의 차이는 없으나, 두 번째 경문의 ‘남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異見을 보이고 있다.⁶⁾

다음은 板本에 따른 글자의 同異를 살펴보기로 한다. 왕충의 『論衡』⁷⁾ 「問孔」篇에는 경문의 “子謂公治長”에서 ‘謂’가 ‘曰’[子曰 公治長可妻也]로 표기되어 있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에는 ‘繼’이 ‘緹’로 되어 있으며, 『史記』 「弟子列傳」에는 ‘累繼之中’으로 되어 있다. 『五經文字』⁸⁾에 ‘緹’은 ‘繼’이 本字인데, 廟諱를 피하여 偏旁한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史記』 「孔子世家」에는 ‘纁繼’, 「自序」에는 ‘縹繼’, 『漢書』 「司馬遷傳」에는 ‘累繼’로 되어 있는데, ‘縹’字는 각기 다르지만 ‘繼’字만은 똑같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繼’이 本字이자 통용자로 보인다. 『天文本論語校勘記』 「古本」, 「唐

5) 공홀은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나 病足이었다. 이후 세 번째 얻은 부인 ‘안징제’에게서 ‘孔丘’를 얻게 되었으니, 공자에게는 異腹兄이 있었고, 따라서 공자의 字는 둘째라는 의미의 ‘仲’을 붙여 ‘仲尼’가 되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아픈 공자의 형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공자가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다는 것이 이번 경문의 내용이다.

6) ‘南容’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古注는 ‘南宮縹’라 하고, 新注는 맹의자의 형인 ‘南宮敬叔’이라 칭하고 있다.

7) 중국 後漢의 사상가 王充의 저서이다. 이 책은 후한 말기에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어, 魏·晉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현재 85편만이 남아있다.

8) 『오경문자』는 『설문해자』 등을 자료로 하여 경서에 나타나는 주요한 글자 3,253자에 대한 ‘자음’과 ‘출전’을 注記하고, ‘異體字’가 있는 것은 그 자형을 들어 내력을 설명해놓은 책이다. 당나라 ‘장삼’이 당시의 관리 임용 시험인 과거를 위하여 글자체를 표준화할 필요성을 느껴 만든 것이다.

本」, 「津藩本」, 「正平本」 모두 ‘綆’은 ‘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다음은 ‘공야장’에 대한 인물評의 同異이다. 하안의 『논어집해』에서는 ‘공자의 제자이며 노나라 사람’으로, 姓은 ‘公冶’, 이름은 ‘長’으로 되어 있다.

孔注 : 公冶長은 제자로, 魯나라 사람이다. 성이 公冶, 이름이 長이다.⁹⁾

그러나 황간의 『논어의소』에서는 ‘范甯’을 인용하여, 공야장의 이름은 ‘芝’이고, 字가 ‘子長’이라 하여, 그가 ‘공야지’인지 ‘공야장’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공야장’이 행실이 바른데 죄를 얻은 것은 누명이며, ‘공야’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모두 같은 주석을 달았다. ‘공야장’의 죄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새를 비롯한 짐승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믿어주지 않는 데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할머니 이르길) 아이가 전날 집을 나가 돌아다니더니, 지금까지 돌아오질 않았으니, 마땅히 이미 죽었을 것이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中略) (공야장 이르길) 전에 새들이 서로를 부르며 청계에 가서 고기를 먹자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¹⁰⁾

‘공야장’은 새들이 죽은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집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여 일러주었더니 과연 그 할미의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 일로 인하여 관가로 잡혀갔으나 공야장이 새들의 말소리를 안다는 사실을 믿어 주지 않았다. 육십 일간 옥에 갇혀 있다가 참새, 돼지, 제비의 말을 시험으로 인정받게 되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잡서에서 나온 말이므로

9) 何晏, 『論語集解』, “孔曰, 冶長, 弟子, 魯人也. 姓, 公冶, 名, 長. 纆, 黑索. 綆, 攀也. 所以拘罪人.”

10) 皇侃, 『論語義疏』, “兒前日出行, 于今不反, 當是已死亡, 不知所在. 向聞鳥相呼, 往清溪食肉, 恐是嫗兒也.”

반드시 믿을 수는 없지만, 옛 말에 전하기를 공야장이 鳥語를 해석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데에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集註』에서는 ①前代의 주석과 같이 ‘공야장’이 옥에 간혀 있기는 하지만 그의 죄가 아닐 것이라는 짧은 언질과, ②무슨 일로 결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공자께서 “공야장을 사위 삼을 만하다”고 하셨으니, 분명 ‘공야장’에게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만 단언하고 주석을 마감하였다.

05-03 子貢問曰: “賜也 何如?” 子曰: “女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

이 경문은 ‘자공’에 대한 공자의 評述이다. ‘자공’은 언어에 뛰어난 孔門 四科十哲 가운데 한 사람이며, 孔子學團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자였다.¹¹⁾ 공자는 ‘자공’의 그러한 부유한 삶을 늘 경계시켜 주며, ‘안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도록 다그치곤 하였다.¹²⁾ 이 경문도 사실, “군자는 한 용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인물이 되지 말라”는 의미의 “君子不器”와 연관 지어 논의해야만 ‘자공’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군자는 (한 용도에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君子不器]’라는 명제와, ‘자공은 그릇이다[女器

11) ‘자공’은 공자 사후 6년 동안 廬幕살이를 할 정도로 스승 공자에 대한 충정이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공자가 향년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를 찾았고, ‘자공’ 역시 외부 일을 보던 중 급히 귀가하여 공자를 부둥켜안았으며 그리고 공자는 그의 품에서 돌아가셨다.

12) 『論語』, 「學而」 15 경문에 자공이 공자에게 “가난해도 아침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는데, 기실 후자의 문장은 ‘자공’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자공’은 자신이 부유한 삶을 살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으니, 선생님이 저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길 은근히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괜찮기는 하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禮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답한다. 이것은 곧 安貧樂道의 삶이며, 마음속 깊이 ‘안회’를 염두 해놓은 말씀이었다. (“子貢曰, 貧而無詔,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也]’의 명제를 三段論法에 따라 결론하면 ‘(고로) 자공은 군자가 아니다’라는 ‘자공’을 폄하하는 맥락으로 귀결된다.

물론 경문의 뒷부분에 의하면 ‘너[자공]는 군자가 아니다’라는 스승의 선언에 ‘자공’은 비참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공’이 “어떤 그릇”이냐고 되묻는 데에서 그 말의 배면에 감도는 여운이 자못 의미심장함을 느낄 수도 있다. 공자는 ‘瑚璉’이라 하여 매우 귀하고 화려하며 값진 존재라고 부연하였다.

고주와 신주 등 여러 주석에서 내용상의 이견을 찾기란 어렵다. 다만 서적에 따라 同異가 다소 있을 뿐이다. 『칠경고문보유』 고본에는 ‘何如’가 ‘如何’로 되어 있으며, 『사기』 「중니제자열전」에 ‘賜何人也’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경문 해석상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하안의 『논어집해』에서는 ‘호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았는데, 『집주』와 정확히 같다.

包注 : 瑚璉이란 기장과 피를 담는 그릇이다. 夏나라에서는 瑚라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璉이라 하였으며, 周나라에서는 簠簋라 하였는데, 宗廟에서 쓰는 그릇 중 귀한 것이다. 鄭注 : 기장과 피를 담는 그릇이다. 夏나라에서는 瑚라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璉이라 하였다.¹³⁾

그런데 ‘자공’은 周나라 사람인데 공자는 왜 ‘자공’을 (주나라 그릇인) ‘簠簋’에 비유하지 않고 멀리 하나라와 은나라의 그릇(瑚·璉)에 비유하였을 지가 의문이다. 아마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夏代는 ‘湯’이고 殷代는 ‘武’로서 이들은 聖德의 상징이었으며, 聖君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차원에서 보았을 때, 夏代는 ‘伊尹’이고 殷代는 ‘呂尙’으로서 이들은 어진 재상[賢才]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자가 자공을 ‘호련’이라 비유한 것은 ‘자공’이 어진 賢才로써의 자질도 갖추었고, 게다가

13) 何晏, 『論語集解』, “包曰, 瑚璉, 黍稷之器. 夏曰瑚, 殷曰璉, 周曰簠簋, 宗廟之器貴者. 鄭曰, 黍稷器. 夏曰瑚, 殷曰璉.”

재상으로써 ‘이윤’이나 ‘여상’과 같이 쓰임을 받을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집주』에서는 이 경문이 공자가 ‘자천’을 칭찬했던 「공야장」 3번 경문과 동일선 상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자공’은 실제적으로 공자학단에서 경제적 지원자였을 정도로 돈이 많았고,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 경문 바로 앞의 문장에서 공자가 ‘자천’을 君子라 하여 높게 평가하심을 보고, ‘자공’ 자신은 어느 정도 인물인지를 스승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었던 것이다.¹⁴⁾

자공은 공자께서 子賤을 군자라고 허여하심을 보았다. 이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이처럼 답하셨으니, 그렇다면 자공은 비록 不器 [군자]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그릇의 귀한 것일 것이다.¹⁵⁾

『집주』에 의하면 ‘자공’은 종묘에 쓰일만한 귀중하고 화려한 재능을 갖춘 인물이지만, 「위정」편에 나온 “君子不器”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공자의 평가가 뒤따른다. ‘자공’은 ‘不器’의 경지처럼 “體가 두루 갖추어져 用이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¹⁶⁾ 그릇처럼 하나의 용도에는 국한할 수 있었으니, 그릇 중에서도 귀한 ‘호련’에 빗대으로써 그의 인품 일부를 인정한 의미는 살아 있다.

05-05 子使漆彫(彫)開仕. 對曰: “吾斯之未能信.” 子說.

『논어』 전편에 걸쳐 ‘칠조개’는 이 「공야장」편의 경문에 딱 한 차례 등장하는 인물이다. 王應麟의 『漢志考證』과 『史記』 「仲尼弟子列傳」에 “漆彫開는 姓이 ‘칠조’요 이름이 ‘開’이다. 본래 이름은 ‘啓’이나 漢나라

14) ‘자공’의 이러한 캐릭터는 「학이」 16번 경문에도 드러나고 있다.
 15) 朱熹, 『論語集注』, “子貢見孔子以君子許子賤, 故, 以己爲問, 而孔子告之以此, 然則子貢, 雖未至於不器, 其亦器之貴者歟.”
 16) 朱熹, 『論語集注』, 「爲政」 12 注, “體無不具, 故用無不周, 非特爲一才一藝而已.”

景帝의 이름을 ‘啓’이므로 이를 휘한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공자가어』 「제자해」에는 이 『논어』 경문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다.

칠조개는 채나라 사람이다. 자는 자약이다. 공자보다 11세 연하다. 『상서』를 익혔고, 벼슬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너의 나이는 벼슬 할 만하다. 시기가 장차 지났다.”고 하셨다. 자약[칠조개]이 편지로 아뢰어 말하길 “저는 이 벼슬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라 하니, 공자가 기뻐하셨다.¹⁷⁾

『공자가어』 「제자해」의 내용과 『사기』 「중니제자열전」의 내용을 통해 ‘칠조개’의 姓名과 字, 그리고 인품에 대하여 대략 알 수 있었다. ‘칠조개’의 姓이 ‘칠’과 ‘조’인데, ‘칠’은 옷칠이고 ‘조’는 자개를 박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마도 ‘칠조’는 가구를 만드는 匠人의 직업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그런데 이러한 ‘칠조개’가 孔子學團에 입학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센세이션 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공자학단에 평범하거나 혹은 천한 직업의 사람이라도 누구나 학업에 의지만 있다면 입학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나아가 이 경문에서 공자는 어려운 일에 종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칠조개’에게 스승으로서의 보편적 사랑을 베풀며, 좀 더 나은 벼슬에 나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으로 師弟之間의 돈독한 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칠조개’는 “吾斯之未能信”이라 하며 사양하고 있다. ‘斯之’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이 점에 있어서는” 정도로 볼 때, 해석의 관건은 ‘信’에 모아진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 17) 『孔子家語』, 「弟子解」, “漆彫開, 蔡人, 字子若, 少孔子十一歲. 習尚書, 不樂仕. 孔子曰, 子之齒可以仕矣. 時將過. 子若報其書曰, 吾斯之未能信. 孔子悅焉.”
- 18) 김용옥은 『논어』에 출현하는 ‘염구’의 姓인 ‘柒’도 염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염용의 아버지가 不肖之父였다는 의미도 결국 그가 아마 洗水가의 낮은 관자촌에서 염색 일에 종사했던 賤匠이었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김용옥, 『논어한글역주』 2, 통나무, pp.244-245.)

孔注 : 開는 제자인데, 漆彫가 성이고 開가 이름이다. 벼슬에 나아가는 도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익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鄭注 : 그가 도에 뜻을 둬서 깊은 것을 기뻐한 것이다.¹⁹⁾

『집해』에서는 ‘칠조개’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칠조개’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칠조개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갈 정도로 학문이 익숙하지 못하기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해석은 황간의 『논어의소』에도 大同小異하게 나타난다.²⁰⁾ 그런데 황간의 『논어의소』에 또다른 흥미로운 주석이 하나 添記되어 있다. ‘칠조개’가 공자에게 벼슬길을 사양하는 말을 할 당시, 당대의 군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르기가 꺼려진다는 倪양스의 풀이다.²¹⁾ ‘信’을 자기가 이뤄놓은 학문에 대한 믿음으로 보건, 아니면 당시 군주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견 간에, ‘칠조개’는 결국 스승이 열어주는 벼슬길을 사양했던 것만큼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칠조개는 學優登仕²²⁾ 하려는 儒者의 전통과 登仕를 거부하는 處士의 갈림길에서 과감하게도 후자의 길을 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칠조개’는 지금 당장 권력의 자리가 나의 가능성이 발현되는 곳이 아님을 자각한 것이며, 富貴榮華 앞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좀 더 성숙시키려는 학구적 의지를 스승에게 보인 것이다. 공자의 기쁨은 아마도 이

19) 何晏, 『論語集解』, “孔曰, 開, 弟子, 漆彫姓, 開名. 仕進之道未能信者, 未能究習. 鄭曰, 喜其志道深.”

20) 皇侃, 『論語義疏』, “言己學業未熟, 未能究習, 則不爲民所信, 未堪仕也.”

21) 皇侃, 『論語義疏』, “言時君未能信, 則不可仕也. ……魯君之誠, 未洽於民, 故曰未能信也.”

22) 『千字文』에도 ‘學優登仕’라는 말이 있다. 『논어』 「자장」 13에 자하의 말로 기록된 ‘學而優則仕’[배우고 남음이 있으면 벼슬을 한다]라는 말이 축약된 성어이다.

러한 학우등사의 탄탄대로를 자의반 타의반의 이유로 거절하는 ‘칠조개’의 敦厚한 心志에 대한 희열이었을 것이다.

‘칠조개’는 『韓非子』 「顯學」편에 공자 사후 전개된 儒林 일곱 개의 학파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선 존재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맹자학과 맞먹는 일파를 형성하였고, 그의 사상적 경향까지도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칠조개의 의론은 어떠한 상대에게도 안색을 비굴하게 바꾸지 않으며,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다. 스스로 행동에 곧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곧 노예를 만나도 피하고, 스스로의 행동이 곧다고 생각되면 제후에게도 큰 소리를 친다. 세상의 천자들이 이들을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예우해주었다.²³⁾

결국 공자를 위시로 하는 儒家는 ‘孟子’와 같이 師承관계나 著述 체계가 분명한 학파에 의해 훗날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漆雕開’ 학파와 같은 處士의 무리들을 통하여 선비 본연의 모습이 지닌 處士로서의 節義가 더욱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곧 儒者의 양면성이고 유학의 생명성이다.²⁴⁾ 어쩌면 세속적 지위에 놀리지 않으며, 권력에 굴종하거나 아부를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쌓아가기 위하여 천착하는 儒者야말로 공자가 바라던 제자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反問해 본다. 이 경문에서도 공자의 기쁨[說]이란 ‘칠조개’의 그러한 의연한 자세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스승의 여유이지 않았을까?²⁵⁾

23) 『韓非子』, 「顯學」, “漆雕之議, 不色撓, 不目逃. 行曲則違於臧獲, 行直則怒於諸侯. 世主以爲廉而禮之.”

24) 『漢書』 「藝文志」에도 ‘칠조개’의 언행을 기록한 ‘칠조자’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25) 『韓非子』에서는 ‘칠조개’와 같은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登仕의 거부의 전통을 儒家 집단 내에서 확립시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칠조개 학파’의 성향을 ‘청렴’과 ‘곧은 절개’로 규정하고 있다. 以上은 金容沃의 『논어한글역주』 2, 통나무, pp.244-250.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05-06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 “由也 好勇過我, 無所取材”

이 경문은 ‘乘桴浮海’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논어』 全경문 가운데에서도 매우 유명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여러 주석에 따라 경문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자로’에 대한 평가 역시 天壤之差別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먼저 판본에 따른 경문內 글자의 유무와 동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四書通』과 『文選』 嘯賦注에는 ‘于’가 ‘於’로 되어 있으며 『玉篇』에서 이 『논어』 경문을 인용한 부분에 ‘乘桴于海’라 하여 ‘浮’자가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은 주석은 해석상에 있어서 큰 변화 요인이 못된다. 다만, 문장 후미의 ‘才’에 대한 異論이 많은데, 이 ‘才’의 풀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된다.²⁶⁾ 일단 『집해』의 주석을 보면, 두 가지의 견해로 다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이 말했다. ‘부’는 대나무와 통나무를 엮은 것이다. 큰 것을 ‘벌’이라 하고, 작은 것을 ‘부’라고 한다. ①정현이 말했다. 자로는 실제로 부자께서 항해하고자 하심을 정말로 믿었다. 그래서 (공자는 그가) 용맹을 좋아함이 나를 뛰어 넘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소취재’라는 것은 ‘뗏목의 재목을 구할(취할) 바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로는 (공자의) 미묘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그를 희롱하신 것일 뿐이다. ②또 (다른) 하나의 설은 이러하다. 자로는 공자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하고자 함을 듣고 곧 기뻐하기만 했고, 다시는 다른 생각(희망)을 살펴보지 않았다. 고로 공자는 그의 용맹함을 감탄하여 나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다. ‘무소취재’는 ‘오직 나[자로]를 취하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옛날 글자에 ‘材’와 ‘哉’는 (그 의미가) 같았기 때문이다.²⁷⁾

26) 馮登府의 『異文考證』에는 ‘哉’자는 ‘才’를 따르니 ‘才’와 ‘哉’는 당시 통용되었다고 한다.

27) 何晏, 『論語集解』, “馬融注: ‘桴, 編竹木也. 大者曰筏, 小者曰桴也.’ 鄭玄注: ‘子路信夫子欲行, 故言好勇過我也. 無所取材者, 言無所取於桴材也. 以子路不解微言, 故戲之耳. 一曰, 子路聞孔子欲乘桴浮海便喜, 不復顧望. 故孔子歎其

정현의 ① 첫 번째 주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1)경문에 ‘杼[작은 뗏목]’를 써놓은 것으로 보아 공자는 실제로 항해할 의사는 없었다. (2)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로’는 공자가 실제로 항해할 것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3)그러한 ‘자로’를 바라 본 공자는 ‘자로’가 무안해 하지 않도록 지금 항해를 하고 싶어도 ‘뗏목을 만들 재목[才]을 구할 길이 없는데?’라 하였다. ‘才’를 뗏목 만들 수 있는 ‘재목 재’로 그대로 풀이한 것이다. (4)어쨌든 ‘자로’가 공자의 미묘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는 그를 놀린 것이다.

정현의 ② 두 번째 주석 역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1)‘자로’는 공자의 항해 계획을 믿고 다른 생각과 걱정은 하지 않았다. (2)그래서 공자는 그의 용맹함과 담대함을 높게 평가했다. (3)따라서 다른 제자를 취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才’는 ‘哉’와 같이 통용되니,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이해하였다. 결론적으로 『집해』에서는 공자가 자로를 놀렸다는 견해(①)와 공자가 다른 제자를 염두지 않고 오직 자로만을 생각한다는 견해(②)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²⁸⁾ 다음은 황간의 『논어의소』에 나타난 흥미로운 주석이다.

또 한 학파의 설은 이렇다. 공자가 道가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곧 자신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지 않음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작은 뗏목을 타고 거대한 바다로 들어감과 같은 것으로 끝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이치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나[공자]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무릇 나[공자]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모두 그들의 도가 실현되지 않음은 역시 나로 말미암은 까닭이다. (그런데) 자로는 공자가 ‘나 때문에[我道由]’라고 말했을 때, ‘由’字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이 곧 자기

勇曰過我，無所取材，言唯取於己。古字材哉同耳。”

28) 『集注』에서는 공자가 ‘자로’를 譏弄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론만 보자면 정현의 첫 번째 주석과 동일하지만, 그 戲弄과 譏弄의 판단 근거는 서로 다르다.

이름을 말한 것인 줄 알고 곧 기뻐 날뛰었다. 이에 공자는 자료가 그 미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여 야단치기가 좀 미안했다. 그래서 은미하게 희롱하여 말하기를, 너의 호용이 나의 호용을 뛰어넘는다면, 나는 뗏목을 만들 재목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²⁹⁾

『의소』의 견해는 이렇다. 세상이 혼탁하여 공자가 한탄하고 있지만, 단지 공자에게만 국한된 세대가 아니라 공자를 따르는 모든 門徒들의 똑같은 고충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스승인 공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므로 ‘나 때문에[我道由]’라고 말했는데, 어리석은 ‘자료’가 앞뒤 구문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름인 ‘由’만을 불러 주셨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뻐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자는 어리석은 ‘자료’의 모습에 직접 꾸짖기가 민망하여 은미하게 희롱하는 어투로 말해야만 했고, “뗏목을 만들 재목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이것은 ‘才’를 ‘재목 재’로 풀이한 것이며, ‘자료’를 희롱한 이유는 『집해』와 다르겠으나, 정현의 첫 번째 주석과 ‘才’의 풀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집주』의 내용이다. 『집주』에 의하면 공자의 항해 의지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했는데, ‘자료’가 이를 넘겨짚어 사실로 간주하였으니, 공자가 ‘자료’의 사리분별력 없음을 기롱하였다는 것이다.

정이천이 말했다. “바다에 떠다니고 싶다는 탄식은 공자께서 천하에 어진 임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신 말씀이다. 자료는 義에 용감했다. 고로 공자께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는...’ 하고 말씀하신 것은 가설적인 언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것이 실제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부자께서 자기와 더불어 한다는 것만 좋아 날뛰었다. 고로 부자께서는 그 용기를 아름답게 여기시면서도, 사리를 헤아려[재탁] 義[적절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기롱

29) 皇侃, 『論語義疏』, “黃侃注: 又一家云, 孔子爲道不行, 爲謦言我道之不行. 如乘小桴入於巨海, 終無濟理也. 非唯我獨如此, 凡門徒從我者道皆不行, 亦竝由我故也. 子路聞我道由, 便謂由是其名, 故便喜也. 孔子不欲指斥其不解微旨, 故微戲曰, 汝好勇過我, 我無所更取桴材也.”

하신 것이다.³⁰⁾

위 주희의 설명에 청대 ‘모기령’은 아래와 같이 반대하는 주석을 내놓았다. 공자의 항해와 탄식은 본래 寓言인데 마치 이를 장엄하고 엄숙한 경지의 말씀으로 올려놓고 ‘자로’가 사리분별도 못하는 자로 꾸짖는 것은 공자의 본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자는 ‘자로’가 스승의 탄식과 항해의 취지를 간파하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은미한 말로 풍자한 것이라 하였다.

승부의 탄식은 원래 우연에 속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다시 장엄한 말로 만들어서 사리를 재탄하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는 말로 하였으니, 이는 공자의 본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자로가 공자의 은미한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은미한 말로 여기에 풍자하여 “큰 바다가 넓고 넓어 뗏목으로는 심히 어렵네.”라고 한 것이다.³¹⁾

그런데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은 ‘자로’에 대한 평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다산은 무엇보다도 이 ‘乘桴浮海’章 다음에 이어지는 ‘자로’·‘염구’·‘공서화’에 대한 공자의 진술에서³²⁾ ‘자로’를 매우 수준 높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즉 공자는 “자로가 제후의 나라에서 軍의 재정 업무를 맡겨 다스리게 할 만하다.”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승부부해’장에서 ‘자로’를 기롱이나 희롱으로 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다산의 견해이다.

선유들의 기록에 자로는 어리석고 사리에 밝지 못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다

30) 朱熹, 『論語集註』, “程子曰: ‘浮海之歎, 傷天下之無賢君也. 子路勇於義, 故謂其能從己, 皆假設之言耳. 子路以爲實然, 而喜夫子之與己, 故夫子美其勇, 而譏其不能裁度事理, 以適於義也.’”

31) 모기령, “毛曰: 乘桴之歎, 原屬寓言, 忽復作莊語, 譏其不裁度事理, 則于夫子本旨, 全然不合, 子路不解微言, 故復以微言諷之曰, 大海蕩蕩, 桴材極難.”

32) 『論語』, 「公治長」7, “子曰: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 不知其仁也.”

만 이를 보는 이로 하여금 우롱하고 업신여겨 비웃게 하기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있으니, 이는 큰 폐단이다. 공자는 자로를 가리켜 “由는 천승의 나라에 그 부세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공야장」 ‘7번’)고 인정하였으니, 그 직책이 우리나라(조선)에서는 호조판서 겸 선혜청의 제조에 해당된다. 그 관직에서 종행하는 사무는 반드시 추호처럼 세밀하게 따져 들어가야 한다. 어찌 후세에서 이 장구나 따지는 썩은 유자들이 (그를) 업신여겨 농락할 수 있겠는가?

천승의 나라[諸侯國]에서 軍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는 매우 세밀함을 요구하는 요직이며, 조선의 호조판서에 부합할 정도로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그러한 직책에 ‘자로’를 허여한 것은 분명 공자가 ‘자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돈후하였고 무한함을 보여주는 反證이다. 다산은 章句나 따지는 썩은 유자들의 선부른 판단과 해석에 일침을 가한다.

대저 ‘승부부해’는 어린아이도 그 불가함을 아는데, 이에 자로는 공자의 은미한 말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공자를 좇아 따르고자 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것이 실정과는 거리가 먼말이 아니겠는가? 공자의 뜻은 한 조각의 뱃목을 타고 구만리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로 죽음의 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진실로 이것이 도를 행하는 일로서 나 홀로 행한다 하면 자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한편으로는 자로의 마음이 도를 행하려 하는 데 열정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로가 목숨을 버리고 스승을 따르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성인과 한 현인의 의기가 서로 부합함은 천 년 이후 지금까지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는데, 자로인들 어찌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기뻐한 것은 자로가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해 기뻐한 것이다.³³⁾

33) 丁若鏞, 『論語古今註』, “先儒筆頭, 子路爲癡駭不曉事之人, 直令覽者愚弄侮笑若狂夫然, 此大蔽也. 孔子許子路曰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 其在我邦, 卽戶曹判書兼宣惠提調者也. 其綜覈事務, 必細入秋毫, 豈後世章句腐儒所可侮弄者乎? 夫乘桴浮海, 尺童且知其不可, 乃謂子路不解微言, 實欲從行, 豈不遠於情乎? 孔子之意, 若曰乘一片之桴, 涉萬里之海, 此是危險, 必死之地. 然苟以行道之故, 吾將獨行, 則由也必從之. 一則許子路心熱於行道, 一則知子路舍命而從師. 一聖一賢, 意氣相許, 千載之下, 尙令人感激, 子路安得不喜? 喜者, 喜其知己也.”

다산은 ‘乘桴浮海’章을 師弟之間의 意氣投合 장면으로 승화시켰으며, ‘자로’에 대한 폄하 대신에, 오히려 ‘자로’를 응원하는 어투로 강변한다. 스승이 제자를 신뢰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지지하는 우정으로 경문의 大義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감동과 감명의 여운을 잔잔하게 띄어주고 있다.

05-07 孟武伯問：“子路仁乎。”子曰：“不知也。”又問：子曰：“由也，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不知其仁也。”“求也，何如”子曰：“求也，千室之邑，百乘之家，可使爲之宰也，不知其仁也。”

‘자로’·‘염구’·‘공서화’ 세 사람이 하나의 경문에 동시 등장하는 것은 이번 경문(「공야장」 7번)과 「선진」 21번 경문 두 곳이다. 「선진」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자로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부형이 계신데 어찌 그렇게 곧장 실천으로 옮길 수만 있겠느냐? 하였다. 염유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천에 옮겨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듣는 대로 곧장 실천에 옮기라고 한다. 동일한 질문에 상이한 대답을 하는 스승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낀 공서화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는 염유는 항상 물러나는 성격이므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자로는 보통 사람보다 앞서 가는 성격이므로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답한다.³⁴⁾

공자는 제자들의 개인적 성향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공자의 그 유명한 ‘상대주의적 교육방법론’의 설법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세 사람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논어』에 두 차례나 보인다는 점이다. 『春秋』에 의하면 ‘맹무백’은

34) 『論語』, 「先進」, “子路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曰 由也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求也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赤也惑. 敢問. 子曰, 求也退, 故, 進之, 由也兼人, 故, 退之.”

애공 11년(BC484년)에 ‘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며, 공자와 ‘맹무백’이 대화하는 것을 바로 그 이듬해인 애공 12년(BC483년)으로 유추하여 볼 때,³⁵⁾ 공자는 향년 69세, 자로는 60세, 염구는 40세, 공서적은 27세에 해당하는 나이가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한 耳順과 不惑에 접어든 제자들을 評하는 공자의 언표에서 제자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乘桴浮海’章에서의 ‘자로’에 대한 평가는 이번 경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 된다.

한편 『집해』에서는 ‘공안국’의 ‘정현’의 注를 인용하여 ‘千室之邑’과 ‘百乘之家’ 그리고 ‘千乘之國’의 규모를 명확히 설명하여 놓았다. ‘천실지읍’과 ‘백승지가’는 ‘大夫’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천승지국’은 ‘諸侯’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르면 공자는 ‘염구’를 대부의 집안에서 재상을 시킬만한 인물로 제한한 셈이고, ‘자로’는 제후의 나라에서 軍재정을 담당시킬 만한 인물로 인정한 것이다. ‘염구’보다 ‘자로’에 대한 평가의 스케일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孔注 : 仁道는 지극히 커서, (仁하다는) 이름을 완전히 가질 수 없다. 孔注 : 賦는 징병하는 일이다. 孔注 : 千室之邑은 卿大夫의 邑이다. 卿大夫는 家라 부르는데, 諸侯가 千乘이고, 卿大夫는 百乘이다. 宰는 가신이다. 鄭注 : 大夫의 家は 邑에 百乘이 있다. (千室之邑과 百乘之家는) 采地가 동일한 畝이다. 馬注 : 赤은 제자인 公西華이다. 용모와 태도가 좋아 손님 접대의 일을 맡길 만하다.³⁶⁾

기타, 다른 주석에서는 ‘仁’의 道가 너무 커서 ‘자로’가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공자가 이를 돌려서 軍재정을 담당할 만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35) 魯나라 삼환씨 중에서도 공자는 맹손씨 쪽과 가장 친분이 두터워 스스로 없이 말할 정도의 관계였다. 계손씨(계환자, 계평자 등) 가문과의 거리가 가장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36) 何晏, 『論語集解』, “孔曰, 仁道至大, 不可全名也. 孔曰, 賦, 兵賦. 孔曰, 千室之邑, 卿大夫之邑. 卿大夫稱家, 諸侯千乘, 大夫百乘. 宰, 家臣. 鄭曰, 大夫之家, 邑有百乘. 采地一同之廣輪也. 馬曰, 赤, 弟子公西華. 有容儀, 可使爲行人.”

하여, 역시 ‘자로’를 폄하하는 논조도 여전히 보인다. 황간의 『의소』에서는 범녕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疏를 붙였다.

仁의 도는 크고 멀어서 중유가 아직 그것을 가질 수 없었다. 또 仁이 없다고 말하여 지목하고 싶지도 않으셨고, 권면하고 달래려는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롱하여 이르기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이다.³⁷⁾

역시 ‘자로’에 대한 평가가 쓸쓸할 정도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집주』에서도 자로가 가끔 仁에 이르렀기에, 반드시 仁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아예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것이라 하고 있다.

자로는 인에 있어 하루에 한번이나 1개월에 한번 이르는 자이니,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여 그 有無를 기필할 수 없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³⁸⁾

『집해』와 『집주』 그리고 『의소』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 공자가 모든 제자들에게 ‘仁’을 허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제자들의 그릇됨[器]만을 긍정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다만 『집해』에서는 ‘百乘之家’와 ‘千室之邑’ 그리고 ‘千乘之國’의 규모를 들어 ‘자로’의 활약 범위를 좀 더 높게 규명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으며, 『의소』에서는 ‘仁’의 경지가 至高至大하기 때문에 자로의 인품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므로, 아예 권면과 가르침의 처방도 필요 없어 ‘모르겠다’고 기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집주』에서는 자로가 ‘仁’을 실천한 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가 직설적으로 ‘자로’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 ‘모르겠다’라고 돌려 말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집주』에서는 ‘자로’가 仁에 도달하긴 하였으나 가끔 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공

37) 皇侃, 『論語義疏』.

38) 朱熹, 『論語集注』, “子路之於仁, 蓋日月至焉者, 或在或亡, 不能必其有無, 故以不知告之.”

자 역시 확실히 말할 수 없으므로 ‘모르겠다’고 한 것이라 하였다.

05-08 子謂子貢曰：“女與回也孰愈？”對曰：“賜也何敢望回。回也聞一以知十，賜也聞一以知二。”子曰：“弗如也！吾與女弗如也。”

이 경문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선행연구가 있다.³⁹⁾ 이에 본고에서는 위 문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요점만 기술한다. 이 경문 해석의 관건은 經文 後尾의 “吾與女弗如也.”를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지에 있다. 물론 이때 ‘與’의 훈석도 ①‘허여하다’와 ②‘더불어’로 구분하게 되며, 고주와 신주 간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아래 ‘표’를 참조)

	출전근거	吾與女弗如也	해석
古注	『논어집해』 ⁴⁰⁾ (포함 注), 『논형』 「문공」, 『삼국지』 「하우연전」, 『후한서』 「교현전」	與→ 더불어 吾與女 [✓] 弗如也	나(공자)와 더불어 너(자공)는 안회만도 못하다.
新注	『논어의소』, 『논어집주』	與→ 허여하다 吾與 [✓] 女弗如也	나(공자)는 너(자공)가 안회만도 못함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끊어 읽기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은 “子曰 攻乎異端，斯害也已”⁴¹⁾ “廐焚，子退朝曰，傷人乎，不問馬。”⁴²⁾ 등 『논어』 전편에서 다양하게 채록할 수 있다.

39) 金容載, 「『論語』 古注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 『東洋哲學研究』 第59輯, 東洋철학연구회, 2009, pp.46-48. 참조.

40) 何晏, 『論語集解』, “孔曰, 愈, 猶勝也. 包曰, 既然子貢不如, 復云吾與女俱不如者, 蓋欲以慰子貢也.[공안국의 주에 愈는 ‘낫다’는 말과 같다. 포함의 주에 이미 子貢이 못하다라 인정하고, 다시 나와 너는 모두 (안회만) 못하다라 말한 것은 아마도 子貢을 위로하고자 해서다.]”

41) 『論語』, 「爲政」 16,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42) 『論語』, 「鄉黨」 12, “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05-09 宰予晝寢 子曰：“朽木不可雕也，糞土之牆不可朽也，於予與何誅。” 子曰：“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於予與改是。”

‘재여’는 ‘재아’라고도 불리며 평소 말을 잘 하였으나, 그 말에 행실이 미치지 못하여 공자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는 제자로 묘사되곤 한다. 아니 『논어』 전편에 걸쳐 일관되게 공자로부터 꾸중만 듣는 제자로는 ‘재여’가 유일할 정도이다.⁴³⁾ 그러나 『사기』 「공자세가」편에 ‘재여’는 ‘자공’·‘안회’·‘자로’와 함께 공자를 보필하는 손꼽히는 대표 제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탁월한 관료적 자질을 갖춘 제자로도 그려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재여’는 ‘자공’과 함께 四科十哲에 중에서도 언변에 뛰어난 제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치적 술수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評述되고 있다. 그런 ‘재여’가 『논어』 속에서는 공자로부터 叱責과 詰難만 받고 있으니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재여’가 공자로부터 꾸짖음을 받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를 “宰予晝寢”의 다양한 訓釋에 따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韓愈의 『論語筆解』에서는 ‘晝’를 ‘晝’⁴⁴⁾[한계 긋다]로, ‘寢’을 ‘休息[그치다]’으로 訓釋하였다. 이럴 경우 “재여주침”은 주희의 주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풀이되며, ‘재여’가 공부를 이쯤에서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나무란 것이 된다. 즉 ‘재여’는 더 공부할 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계점을 긋고 도중에 멈춘 꼴이 되니, 공자가 이에 분개하여 그를 꾸짖은 것이다. 둘째, 하안의 『논어집해』에서는 정현과 공안국의 주석을 인용하여 “晝寢”을 “낮에 누워서 쉬는 정도”로 훈석하였다.

43) 「八佾」 21 經文에서도 공자는 ‘재여’를 深責하고 있다.

44) ‘晝’가 ‘획’으로 쓰이는 경우는 「용야」 10에도 보인다.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딸릴 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힘이 딸리는 자는 중도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을 뿐이다.”[再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晝.]”

孔注 : 宰予는 제자인 宰我이다. / 鄭注 : 寢은 누워서 쉬는 것이다. / 包注 : 朽는 썩다는 뜻이고, 彫는 새기고 쪼고 파고 그리는 것이다. / 王注 : 朽는 흠손을 뜻한다. 두 가지는 비록 공을 들이더라도 완성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 孔注 : 誅는 꾸짖다는 뜻이다. 지금 내가 마땅히 너에게 무엇을 꾸짖겠는가? 라는 것은 매우 꾸짖는 말이다. / 孔注 : 이를 바꾸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을 듣고 행동을 믿었는데, 지금은 바꾸어 말을 살피고 행동을 보게 된 것으로, 宰我が 낮에 잠 잔 것에서 비롯되었다.⁴⁵⁾

셋째, 『文選』에는 鄭玄의 論語注를 인용하여 ‘寢’을 ‘누워서 휴식하는 것[臥息]’이라 하였다. 넷째, 황간의 『논어의소』에서는 ‘寢’을 ‘眠’이라 하여 ‘잠자다’라 했고, ‘朽’를 ‘敗爛’, ‘彫’를 ‘彫鏤刻畫’이라 하여 ‘썩어 문드러진 나무에 공교함을 베풀면 그릇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비유하였다. 또한 ‘牆’을 ‘牆壁’, ‘坊’를 ‘흠손질하여 벽을 평평하게 칠하고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여, 만일 糞土로 된 담장에 흠손질 할 경우 결국 무너져 내려 꾸밀 수 없게 됨을 비유·설명했다. 이는 ‘재여’가 낮잠을 자서 다시 가르침을 베풀 수 없음을 ‘爛木’과 ‘糞牆’에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李匡父의 『資暇錄』에는 ‘晝’는 곧 ‘晝’이며, ‘晝寢’은 ‘繪畫寢室’이라 하여 ‘재여’가 낮에 잠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병풍[그림]을 쳐놓고 잠들었기 때문에 공자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석을 붙여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周密의 『齊東野語』內 侯白의 注에도 ‘晝’는 ‘晝’와 통용된다고 되어 있다. 결국 ‘晝寢’은 ①낮에 잠자는 것, ②누워서 휴식하는 것, ③병풍이나 그림을 그려놓듯 침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잠드는 것⁴⁶⁾ 등으로 혼석 가능하다.

45) 何晏, 『論語集解』, “孔曰, 宰予, 弟子宰我. 鄭曰, 寢, 臥息. 包曰, 朽, 腐也. 彫, 彫琢刻畫. 王曰, 朽, 穢也. 二者喻雖施功猶不成也. 孔曰, 誅, 責也. 今我當何責於汝乎, 深責之. 孔曰, 改是, 聽言信行, 更察言觀行. 發於宰我之晝寢.”
 46) 춘추시대 당시 왕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종묘와 궁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또한 위 경문 후반부에 ‘子曰’이 한 차례 더 보이는데, 『집주』에서는 胡氏의 말을 인용하여 “衍文이거나 하루 사이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반면,⁴⁷⁾ 청대 유보남은 『論語正義』에서 「팔일」편 3·4장, 「술이」편 16·17장, 「태백」편 8·9장, 「자장」편 15·16장 등과 같이 위와 아래의 두 개의 경문을 서로 이어주며 뜻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05-12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공야장」 1~11번 경문까지가 공자 주변의 제자나 인물들에 대한 評述이었다면, 12번 경문은 ‘자공’이 스승 공자를 회상하는 문장에 해당한다.⁴⁸⁾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자가 말한 진리 대부분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平易한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굳이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이하학에 가까운 비근한 어휘에 국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공자가 형이하학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자가 살던 당시에 ‘性’이니 ‘天道’니 운운하는 우주론적 인식의 틀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학문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하는 풍조가 있으며, 이를 흔히 思潮라 할 때, 공자 당대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는 그러한 哲理的 개념이 구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해』에서는 이 경문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何注: ‘章’은 밝다는 뜻이다. 문체는 외형과 바탕이 드러나 보이므로 눈과 귀로 따를 수 있다. 何注: ‘性’이란 사람이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天道란 元亨과 日新의 道인데, 매우 은미하므로 들을 수 없다. 鄭注: 性은 사람이 血氣를 받아 태어남을 말하는데,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길하고 흉함이 있다. 天道는 七政(日月과 五行)이 변동하는 원리이다.⁴⁹⁾

47) 朱熹, 『論語集注』, “胡氏曰, 子曰, 疑衍文, 不然, 則非一日之言也.”

48) 정확히는 11~13번 경문까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본고 제II장 「공야장」 편의 구조와 체계 분석에 자세히 밝혀 놓았다.

『집해』에서는 공자의 ‘문장’이 드러나는 문체와 같기 때문에 이목으로 언젠든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性’은 사람이 혈기를 받아 태어난 것으로서 매우 은미하며, ‘賢愚’와 ‘吉凶’을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가 평소 말씀하지 않은 바라 하였다. 또한 天道는 日月과 五行 등의 七政이 변동하는 원리로 파악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논어』에 性을 화두로 삼은 경문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비슷한 것이나, 후천적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⁵⁰⁾고 하는 「양화」편에 한 차례 더 나타난다. 「양화」편의 경문이 어느 시기에 편집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분명 맹자의 성선론이나 순자의 성악론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性을 주요 논제로 다뤘던 『맹자』나 『장자』의 편집 시기와의 비교해볼 만한 경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05-16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

‘안평중’은 공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 제2편의 「관안열전」에 나오는 ‘안영’에 해당하는 인물이다.⁵¹⁾ 『史記』 「管晏列傳」의 기록에 의하면 ‘안평중’의 캐릭터는 근엄하였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알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인물됨을 알아보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齊景公을 섬기며 상업주의를 진작시켜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든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위 경문에도 공자가 ‘안평중’을 평하며 “善與人交”라 하였다. 즉 “사람들과 더불어

49) 何晏, 『論語集解』, “章, 明也. 文采形質著見, 可得以耳目循. 性者, 人之所受以生也. 天道者, 元亨日新之道, 深微, 故不可得而聞也. 鄭曰, 性, 謂人受血氣以生. 有賢愚吉凶. 天道七政變動之占也.”

50) 『論語』, 「陽貨」 2, “性相近也, 習相遠也.”

51) 司馬遷은 管仲이 죽은 후 100여 년이 지나 晏子が 출현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晏嬰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을 상당히 높게 다뤘다.

교제하기를 잘 한다.”로 그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관건은 뒷문장이 “久而敬之”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먼저 판본에 따른 글자의 유무를 보아도 해석의 다양성은 명백해진다. 첫째, 황간 『논어의소』, 『칠경고문』에는 ‘久而人敬之’로 되어 있어, 而 뒤에 주어 ‘人’을 덧붙여 놓았다. 이럴 경우 경문은 “안평중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잘하여서, 오래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그[안평중]를 공경하고 있다.”로 해석된다.

이것은 사귀를 잘하는 증거이다. 무릇 사람의 사귀는 쉽게 끊어지는데 평중은 사귀이 오래되어도 남들이 더욱 그를 공경한다.⁵²⁾

사람들과 교제에는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이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마음이 매우 잘 맞아서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귀와 같은 것이 있고, 또한 늙을 때까지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새로 만난 사람처럼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에 있어 처음에는 존중하기 쉽지만 마지막까지 존경하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공자가 이러한 ‘안평중’의 교제술을 칭찬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둘째, ‘久而敬之’의 주체를 앞문장과 같이 계속 안영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경문은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 하니, 오랜 세월이 지나도 더욱 공경스럽게 사람을 대한다.”로 해석된다. 즉 ‘안평중’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타인에 대한 공경심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주희와 청대 유보남의 풀이이다.⁵³⁾

52) 皇侃, 『論語義疏』.

53) 유보남은 뒷 문장에 人이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집주』에서는 “程子が 말씀하였다. “사람은 사귀기를 오래하면 공경이 쇠해지니, 오래되어도 공경함은 사귀기를 잘하는 것이다.”[程子曰, 人交久則敬衰, 久而能敬, 所以爲善.]”라 하였다.

05-18 ①子張問曰：“令尹子文三任爲令尹，無喜色；三已之，無溫色。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尹。何如？”子曰：“忠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仁？”
 ②崔子弑齊君⁵⁴⁾，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至於他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違之。之一邦，則又曰：猶吾大夫崔子也。違之。何如？子曰：清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仁？

이 경문은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다. 앞부분은 초나라 재상 ‘영윤자문’에 관한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진문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논의의 서술 과정에서 편의상 ①과 ②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①문장에 대한 『집해』와 『집주』는 해석상에서 거의 같다. ‘영윤자문’을 ‘투 누오도’(초나라 방언)로 소개하는 면이나, 공자가 그의 충성을 인정하면서도 ‘仁’을 허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히 일치한다.

孔注：令尹子文은 楚나라 大夫로, 姓은 鬬이고 이름은 穀이며, 字는 於菟이다. 孔注：단지 그의 충성스러운 일을 들었을 뿐 그가 仁한지를 알지 못한다.⁵⁵⁾

그러나 당대 육덕명의 『경전석문』은 색다른 풀이를 내놓았다. 『釋文』에 “未知，焉得仁?”의 ‘知’를 ‘智’로 발음하고, 해석은 “지혜롭지 않은데, 어찌 仁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풀이하였다.⁵⁶⁾ 이렇게 되면 智者는 仁者보다 하위 개념이다. 이밖에도 황간의 『의소』에서는 ‘何如’ 아래에

54) 『春秋左氏傳』襄公 25년：최저는 동강의 미모에 반해 그를 맞이하였는데, 장공이 그 여인과 간음하자 군대를 일으켜 장공을 시해함. <제 장공이 최저를 문병한 뒤, 틈을 보아 당강과 은밀히 만났다. 무장한 병사들이 뛰쳐나와 제장공에게 덤벼들었다. 이에 놀란 제장공이 높은 대 위로 올라가 살려 줄 것을 간청했으나 병사들이 들어주지 않았다. 제장공이 급히 담을 넘어 도망가자 병사들이 그에게 화살을 날렸다. 제장공이 다리에 화살을 맞고 떨어지자 병사들이 곧바로 달려들어 제장공을 시해했다.>

55) 何晏, 『論語集解』, “孔曰, 令尹子文, 楚大夫, 姓鬬, 名穀, 字於菟. 孔曰, 但聞其忠事, 未知其仁也.”

56) 주희의 注에는 “知 如字. 焉, 於虔反.”이라 하여 “지는 글자 그대로 새긴다.”로 되어 있다.

‘也’가 있다. 이 경문의 관건은 ㉒의 문장에 있다.

먼저 판본에 따르면 『唐石經』에 ‘棄’는 ‘弃’로 되어 있으며, 『皇本』에는 ‘違之. 之一邦’이 ‘違之. 之至一邦’으로, 『七經考文』 足利本에서는 ‘違之至一邦’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하안의 『논어집해』와 육덕명의 『經典釋文』에 魯論에서는 ‘崔’를 ‘高’라고 읽는데 지금은 고론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弑’가 ‘殺’로 되어 있다.⁵⁷⁾ 한편 『九經古義』에서도 崔子를 鄭氏注에 따라 ‘노론에서는 崔를 高라 읽으니 지금은 고론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군경평의』에서는 이를 매우 비판하였다.⁵⁸⁾

孔注 : 崔子와 陳文子是 모두 齊나라 大夫이다. 崔杼가 난리를 일으키자, 陳文子是 이를 미워하여 40필의 말을 버리고 떠나갔다. 鄭注 : 魯論에서는 ‘崔’를

57) 陸德명의 『經典釋文』에 ‘弑’가 ‘殺’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급 상의 차이를 분별하고자 해서이다.

58) 그런데 『群經平議』에서는 “‘崔子弑君’ 부분을 왜 ‘高子’라고 고쳐서 읽는 지에 대하여 『경전석문』의 주장이 오류임을 설명하여 놓았다. 소위 ‘崔’를 ‘高’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래 문장에 두 번의 崔子が 있기 때문이다. 陳文子是 崔杼가 군주를 시해한 것 때문에 미워하여서 도망갔는데 어찌 그를 칭하여 말하기를 ‘우리대부 崔子[吾大夫崔子]’라고 하였겠는가? 또한 당시 열국의 대부분이 비록 반드시 어질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또한 어찌 그 사람들을 모두 崔子和 같다고 하겠는가? 魯論에서 高라고 읽은 것은 매우 일리가 있는 것으로 高子是 高厚를 말한다. 좌전 양공 19년 조에서 ‘가을 8월에 제나라 崔杼가 高厚를 灑濼에서 죽이고서 그 가산을 몰수하여 자기 것으로 하였다’라 하고, 춘추 경문에서 ‘제나라가 그 나라의 대부를 죽였다고 쓴 것은 高厚가 군주의 그릇된 일을 추종해서이다’라 하였다. 오직 高子만이 군주의 그릇된 일을 추종했기 때문에 崔杼를 막을 수 없었고, 도리어 崔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崔杼가 비로소 국정을 전횡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군주를 시해하는 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文子是 화의 근원이 高子에게 있음을 미루어 알아차리고 깊이 원망하였다. 매년 각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서 집정하는 신하들이 지위를 차지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깊은 식견과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대부[高子]와 같구나”라고 탄식한 것이다. 노론에서 ‘高’로 읽은 것은 반드시 전수된 가르침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육덕명이 잘못하여 경문의 崔子를 노론에서는 모두 高자라고 읽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경문의 全義를 오해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高’로 해석하였는데, 지금은 古論을 따른다. 孔注 : 文子是 악하고 거스르는 일을 피하고, 無道한 곳을 떠나 道가 있는 곳을 구하였다. 春秋時代에 신하는 군주를 능멸함이 모두 崔杼와 같았으나 그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⁵⁹⁾

『집주』에서는 ‘陳文子’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떠났으니, 과연 깨끗하다고 이를만하다. 그러나 의리의 당연함을 보아서 홀연히 훌훌 벗어버려 엽매인 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해의 사사로움에 부득이해서 아직도 원망과 후회를 면치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의 깨끗함만을 허여하시고 그의 仁은 허여하지 않으신 것이라 하였다.

諸주석의 비교		
未知 焉得之	고주	<육덕명 知→智> 지혜롭다 할 수 없으니 어찌 인을 얻었겠는가?
	집주	모르겠다. 어찌 仁하다 하겠는가?
崔子和 高子	집주	崔子 → 崔子
	육덕명	崔子 → 高子
	군경평의	崔子是 崔杼이고 뒤의 陳文子가 탄식하는 부분의 두 崔子是 高子
仁의 여부	집해	충성스러운 일을 들었을 뿐 仁하지는 알지 못하겠다.
	집주	뜻만을 허여하시고 인은 허여하지 않으시다.

05-19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 曰 再斯可矣.

계문자(?~B.C568)는 季氏 가문의 大夫로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공자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던 ‘계손씨’를 떠올린다면, 응당 ‘계문자’는 인격적으로 無道한 사람으로 誤認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계문자’는 노나라의 현자였고, 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⁶⁰⁾

59) 何晏, 『論語集解』, “孔曰, 皆齊大夫. 崔杼作亂, 陳文子惡之, 損其四十四匹馬, 違而去之. 鄭曰, 魯讀崔爲高, 今從古. 孔曰, 文子辟惡逆, 去無道求有道. 當春秋時, 臣陵其君, 皆如崔子, 無有可止者.”

60) 『春秋左氏傳』 문공 6년 조에 계문자의 행보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

노나라의 계문자가 세상을 떠남에 대부들이 그의 집으로 가서 염을 했다. 그 때 노나라 양공도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계문자의 가신 우두머리가 집안의 기물들을 갖추어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명주나 비단을 입은 여자가 없었고,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감추어둔 금이나 옥과 같은 패물이 전혀 없었고, 같은 기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이 없었다. 거기에 모인 군자들은 이것을 보고 계문자가 얼마나 공실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나를 알게 되었다. 선공~성공~양공 3대 군주를 모시며 재상 노릇을 했는데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니, 충성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⁶¹⁾

여하튼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계문자’는 상식 속의 편린과 거리가 먼 충직하고 겸허한 대부였고, 매우 신중한 성품의 인물이었음을 추측하게 만든다. 공자는 그러한 계문자가 “三思而後行” 한다는 성품을 듣고 그를 “再斯可矣”라고 評述하였다. 그런데 이 경문에 대한 고주와 신주의 해석이 각각 다르다. 고주는 정현의 주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鄭注 : 季文子是 魯나라 大夫 季孫行父이다. 文은 시호이다. 文子는 충성스럽고 현명한 행실이 있어 모든 일에 허물이 적었으므로 세 번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⁶²⁾

정현은 계문자의 사려 깊고 신중한 三思를 높게 평가하였고, 당연히 공자의 답은 “두 번만 생각해도 됐을 터인데.” 정도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주희의 주석에서는 계문자의 三思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注를 달았다.

61) 『春秋左氏傳』, 「문공」 6년조, “季文子卒, 大夫入斂, 公在位. 宰庀家器爲葬備, 無衣帛之妾, 無食粟之馬. 無藏金玉, 無重器備. 君子是以知季文子之忠於公室也. 相三君矣, 而無私積, 可不忠乎.”

62) 何晏, 『論語集解』, “鄭曰, 季文子, 魯大夫季孫行父也. 文, 諡也. 文子忠而有賢行, 其舉事寡過, 不必及三思.”

程子が 말씀하였다. “惡한 짓을 하는 자는 애당초 생각함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생각함이 있다면 善을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 생각함에 이르면 이미 살핀 것이요, 세 번 하면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 도리어 현혹된다. 그러므로 夫子께서 비판하신 것이다.⁶³⁾

반추가 깊다고 하여 좋은 생각이 나오는 법도 아니고, 長考한다고 하여 매번 최상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법도 없다. 계문자의 신중함 속에서 『집주』는 더욱 심도 깊은 경계와 우려를 표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사사로움의 개입이다. 사려 깊음이 비겁의 간접 표현일 수도 있고, 살피고 또 살피는 과정 속에서 사적인 감정과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더 커져 미혹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을 경계하신 것이다.⁶⁴⁾

05-23 子曰: “孰謂微生高直, 或乞醯焉, 乞諸其鄰而與之.”

이 경문은 ‘미생고’에 대한 공자의 評述이다. ‘미생고’는 당시 상당히 정직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있었다. 그러나 공자는 ‘미생고’가 식초가 없음에도 옆집에까지 가서 식초를 빌려와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그의 허위를 비판한다. 공자가 보기에 체면만을 생각하는 ‘미생고’는 선의의 실천이라기보다 도덕적 허위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그런데 『장자』 「도적」 편에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오지 않았다. 비가 내려 물이 불었으나, 미생은 떠나가지 않고 기다렸다. 결국 다리 기둥을 부둥켜안고 있다가 빠져 죽고 말았다.⁶⁵⁾

63) 朱熹, 『論語集注』, “程子曰, 爲惡之人, 未嘗知有思, 有思則爲善矣. 然, 至於再則已審, 三則私意起而反感矣. 故, 夫子譏之.”

64) 金용옥, 앞의 책, p.342. 참조.

아마도 ‘미생고’에 대하여 당시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생고’는 고지식하거나 우매하거나, 혹은 허위에 잔뜩 사로 잡혀 있는 인물 등으로 이곳저곳에서 묘사되고 있다. 하안은 ‘미생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孔注 : 微生이 姓이고 高가 이름이며, 魯나라 사람이다. 孔注 : 그것을 여러 이웃에게 빌어서 구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것은 뜻을 굽힌 것이므로 곧은 사람이 될 수 없다.⁶⁶⁾

고주에서도 ‘미생고’는 정직하지 못한 인물로 평술되고 있다. 신주에서는 ‘미생고’를 더욱 강력하게 비판하는 어조로 풀이하였다. 공자가 ‘미생고’를 평가하는 것은 마치 터럭 하나를 주고받는 것에서 千駟萬鍾[방대한 권력과 재물]에 처하는 것까지 모두 꿰뚫어 보심과 같기 때문에, ‘미생고’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공자 역시 평생 ‘정직함’이라는 덕목을 선비로서의 지켜야 할 최우선의 항목으로 정해놓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⁶⁷⁾

공부자 선생님께서 이를 말씀하신 것은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생색을 냈으니, 正直함이 될 수 없다고 기롱하신 것이다.⁶⁸⁾

있는 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正直이듯이, ‘얌’이라는 것도 알면 아는 데로 모르면 모르는 데로 말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65) 『장자』, 「도척」, “尾生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66) 何晏, 『論語集解』, “孔曰, 微生姓, 名高, 魯人也. 孔曰, 乞之四鄰, 以應求者, 用意委曲, 非爲直人.”

67) 공자의 ‘정직성’에 관한 경문은 「위정」 17 “子曰 由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와 「위령공」 24 “子曰 吾之於人也 誰毀誰譽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 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68) 朱熹, 『論語集注』, 「公治長」 23, “人來乞時, 其家無有, 故, 乞諸隣家以與之. 夫子言此, 譏其曲意徇物, 掠美市恩, 不得爲直也.”

비방은 물론이거니와, 정도에 지나친 칭찬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⁶⁹⁾ 이를 본다면 공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면에서건 ‘진실’한 모습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경문은 판본에 따라 글자가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육덕명의 『경전석문』에는 ‘식초 혜’ 글자가 ‘醢’로 되어 있고,⁷⁰⁾ 『五經文字』에도 역시 ‘醢’로 되어 있다.⁷¹⁾

05-27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내용적으로 볼 때 「학이」편부터 줄곧 ‘충’과 ‘신’에 대한 논의는 군자됨의 핵심적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공자가 자신을 충·신의 반열에 비유하는 것은 삶에 대한 최종적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忠信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었으니, 역시 ‘배우기를 좋아함[好學]’이다. ‘호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이며 웬지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혼재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⁷²⁾ 공자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학자로서의 모습을 견지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충직함과 신의만으로도 부족하며, 영원히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만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정의를 내린 셈이다.

여러 주석 상에서도 공자의 이와 같은 好學 정신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경문의 해석에 있어 띄어 읽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衛瓘은⁷³⁾ 경문 ‘必有忠信如丘者焉’에서 ‘焉’을 뒤 구절의 머리글자[焉不如丘之好學也]로 보았고, 그 풀이는 ‘安’과 같이

69) 朱熹, 『論語集注』, 「위령공」 24 注, “毀者, 稱人之惡而損其真. 譽者, 揚人之善而過其實. 夫子無是也.”

70) 陸德明, 『經典釋文』, “醢 亦作‘醢.’”

71) 『五經文字』, “作‘醢’者俗”

72) 김용욱, 앞의 책, p.382.

73) 중국 위·진때의 서예가로 초서에 뛰어났으며 草聖이라 불린 후한의 張芝의 필법을 이어받아 우아하고 품격 있는 글씨를 썼다고 전한다.

‘어찌’의 뜻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경문 해석은 “반드시 충실하고 성실함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어찌[焉]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로 된다. 즉 열 가구의 사람들 모두 내[공자]와 같이 好學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동격의 평가, 혹은 긍정적 언사로 귀결된다. 그러나 당시 제후들을 비롯하여 혼란스런 사회 풍조 하에서 호학의 자세를 품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를 반문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와 같이 띄어 읽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⁷⁴⁾

IV. 結語

以上으로 「公治長」편의 체제와 경문 내용에 따른 구조적 분석을 시작으로, 여러 典據에 따라 경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장들을 선별하여 고찰해 보았다. 「공야장」편은 일상에서 師弟之間에 오갔던 대화들을 주로 담고 있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었다. 「리인」편은 거의 한 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문이 ‘子曰’로 시작되었을 만큼, 공자 중심의 언변이 主를 이루었고, 그 내용 또한 ‘仁’에 대한 설명과 보편적 내면의 덕성 등을 밝혀내는 哲理的 문장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야장」편은 공자의 가족과 관계되는 인물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의 제자, 그리고 先代나 當代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評述이 主를 이루고 있어 각 경문마다 시나리오로 제작할 수 있는 글감들이 많았다.

특히 「공야장」편은 본고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제1부~제2부~제3부 등 크게 세 개의 部로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각 인물들에 대한 評과 陳述이었으며, 제자들에 관한 공자의 評과 斷想이 많았다.

『논어』 「선진」편에 공자가 진채의 들판에서 위난을 당하였을 때, 함께 있었던 제자 10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로부터 ‘孔門

74) 일본의 ‘소라이’는 ‘焉’을 뒷문장의 머리로 붙여 풀이하는 후자의 해석에 찬동한다.

四科十哲'에 대한 언급들이 있게 되었다. 十哲을 각 科에 따라 분류하면, 먼저 ①'덕행'으로 보자면 '안연(안회)'·'중궁(염옹)'·'민자건(민손)'·'염백우(염경)', ②'언어'에 능통한 '자공(단목사)'·'재야(재여)', ③'정치'에 능했던 '염유(염구)'·'자로(중유)', 끝으로 ④'문학'에 소질이 많았던 '자유(언언)'·'자하(복상)' 등으로 정리된다. 이 밖에 '자여(중삼)'와 '칠조개' 등이 孔門의 우수한 제자들로 거론되곤 한다. 孔門 四科十哲을 모두 거론하며, 각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評述을 찾아보는 것도 자못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었겠으나, 이는 「공야장」편에 十哲이 모두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여러 서적에 따라 경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공자와 제자들의 성향 또한 다양한 프리즘을 통하여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를 서술해 보았다. 물론 본고는 어느 것을 '正論'이나 '定論'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출발하였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과 각각의 인물이 갖는 캐릭터는 해석자의 관점에 맡기기로 한다.

<參考 文獻>

- 『大學論語孟子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 『十三經引得』 第8 『大學中庸論語孟子』, 남악출판사, 1978.
- 『十三經注疏』 10, 『論語注疏』, 북경대학 출판사, 1999.
- 『春秋左氏傳』, 보경문화사, 1983.
- 『漢文大系』 1, 『大學說中庸說論語集說孟子定本』, 日本 内外印刷株式會社, 昭和 47.
- 劉寶楠, 『論語正義』 2冊, 北京: 中華書局, 1990.
- 程樹德, 『論語集釋』 4冊, 北京: 中華書局, 1990.
- 何 晏, 『論語集解』(元覆宋世綬堂本), 臺灣: 國立古宮博物院, 民國59.
- 邢 昺, 『論語注疏』, 臺灣: 中華書局, 民國75.
- 皇 侃, 『論語義疏』(懷德堂刊本), 大正 12.
- (宋)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 延世大學校 四書辭典編輯室, 『四書集解辭典』, 정보사, 2003.
- 儒教辭典編纂委員會, 『儒教大事典』, 박영사, 1990.
- 김영호 외,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출판사, 2003.
- 김용욱, 『도올 선생 중용강의』, 통나무, 1995.
- , 『논어한글역주』(2), 통나무, 2000.
- 김용재, 「儒教 經典教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방법론 모색」, 『儒教思想研究』 제22집, 한국유교학회, 2005.
- , 「論語 編纂에 대한 異見과 諸註釋을 통해 본 孔子의 教育精神」, 『漢文古典研究』 제1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1] - 「學而」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 「論語 古注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해석학적 이해[1]」, 『동양철학연구』 제5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 , 「『論語集解』와 『論語集註』의 註釋 比較를 통해 본 『論語』 經文의

理解[2] -「爲政」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박영철 옮김, 『論語』, 이산, 2001.

서복관 저·고재욱 김철운 유성선 역, 『中國經學史의 基礎』,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성백효, 『懸吐完譯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송 복,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 論語의 세계』, 생각의 나무, 1999.

이강재·김효신 역주,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 학고방, 2006.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蔣秋華·馮曉庭 主編, 『宋代經學國制研討會論文集』, 臺灣 中央研究院 中國哲學研究所, 達斐印刷有限公司, 2006.

Abstract

*Understanding on the text of the Analects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Collected Explanations of the Analects and Collected Annotations on the Analects{5}*

*/ Kim Yong Jae**

This thesis has been written to offer a new method and viewpoint of the study on the Confucian classics.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till now the studies on the Confucian classics in South Korea have obtained many good results mainly in the field of the study of administration, or at least in the domain of philosophy. However, the research activities for analytical understanding of Confucian classics, one of the fields of the study on Confucian classics, have been not so energetic. So I became interested in the undeveloped field of study on Confucian classics and that's why I choose the text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the subject of my study.

Zhuxi's Sishujizhu(Collected Annotations on the Four Books) has been one of the most researched areas of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n Korea. This is because Zhuxi's commentary ha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Confucian history of Korea. We should notice that, however, it remains unanswered whether Zhuxi's commentary on the Four Books (including Analects) is entirely correct. Even 'the Four Books', which appeared after Song dynasty, is a vague concept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text of the Analects examining not only Zhuxi's commentary but Old commentary before Zhuxi's and the relatively new commentary in Ching dynasty (1616-1912). In understanding the Analects, only few attempts have so far been made at research of these 'other' commentaries excepting Zhuxi's one. In particular, I

* A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dongjam@sungshin.ac.kr

illustrate the distinction of these ‘other’ commentaries and Zhuxi’s one, as well as the exact meaning and real intention of the text of the first volume in Analects.

【Key words】 the text of the Analects, commentary, sub-commentary, chapter, passage, old annotation, new annotation, the annotations of Chu Hsi, analytics, translation(studies) Collected Explanations, Collected Annotations.

투고일 : 5월 5일, 심사일 : 6월 6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